

건강 칼럼

‘뱃속의 시한폭탄’ 복부대동맥류, 증상 없어도 방심 금물

전 조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복부대동맥류는 ‘뱃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성이 크다.

복부대동맥류란 복부 내에서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정상에 비해 1.5배 이상 커지고 늘어나는 질환이다. 대동맥은 심장에서부터 배, 골반, 다리로 이어지는 동맥피를 보내는 혈관인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2~2.5cm 정도의 직경이지만 복부대동맥류가 생기면 3cm 이상으로 커지고 마치 풍선처럼 부풀기도 한다.

복부대동맥류는 대개 몇 년 동안 천천히 악화되기 때문에 환자가 스스로 이상 증세를 느끼기 어렵다.

혈관벽이 파열되어 병원으로 수송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파열되기 전 복부대동맥류를 발견하는 것은 대개 우연에 기댄다.

배꼽에 등을 대고 가만히 누웠을 때 명치와 배꼽 사이에서 무언가가 덩어리가 잡히고 혈관이 뛰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복부대동맥류일 가능성이 높다. 드물



전 용선
사회병원 중재적치료센터 센터장

게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혈관이 파열되어 극심한 복통이나 요통 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평소 복부에 혈관이 뛰는 듯한 덩어리가 잡히던 사람이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면 최대한 신속히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대동맥류가 파열되면 환자의 상태는 순식간에 악화되기 때문에 빠른 이송만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경우 파열된 즉시 그 자리에서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복부대동맥류가 있는

지 확인해 보고 파열이 되지 않도록 수술, 시술 등을 받는 편이 가장 바람직한 복부대동맥류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복부대동맥류의 진단을 위해서는 복부 CT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 MRI, 혈관 조영술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복부대동맥류는 동맥경화 등이 대동맥 혈관벽에 나타나 발생하거나 노화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생겨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경우, 흡연, 음주를 즐기는 경우, 비만인 경우, 남성인 경우에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가족력의 영향을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증

상이 없어도 건강검진 과정에서 복부대동맥류 발병 여부를 확인해 보는 편이 바람직하다.

만일 복부대동맥류가 진행되지 않거나 파열의 위험이 낮다면 금연이나 혈압 관리, 체중 감량 등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동맥류의 크기가 크다면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파열을 막아야 한다.

개복 후 대동맥류 부위에 인조 혈관을 이식하는 방식이 보편적이거나 환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혈관 내 접근법을 통해 인조 혈관을 삽입하는 시술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단, 대퇴동맥을 통해 혈관 내에 인조 혈관을 삽입하는 방법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안전하다.

또한 인조 혈관 삽입술을 진행한 후 여러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빠른 발견과 신속한 대응, 꾸준한 관리만이 복부대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고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사설

전북도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전북도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4개 시·군에서 접수한다.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 및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도내 시·군 및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갖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지원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자녀수에 따라 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

류를 관할 시·군에 접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는 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함으로써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재계약이나,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계약 또는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에서는 자격 확인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지원하게 된다. 이번 1차 지원은 총 625가구에 대해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및 시·군 누리집상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주거복지팀이나 공공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 등에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바란다.

현대인의 스피치 교육

현대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올바른 스피치 훈련이다. 특히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되면 호칭이 가장 문제다. 호칭을 잘못 사용하면 만나자마자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일단 상대를 존중하는 호칭이 좋다. 호칭은 차츰 대화를 하다가 바뀔 수도 있다.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기분 상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 호칭을 찾을 수 있다. 호칭이 종종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일단 나이가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가능해야 한다.

상대가 높여져 존경받기를 원하는지, 낮춤으로써 친밀해지기를 원하는지도 탐색해야 한다. 첫 눈에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나이차는 어떤지, 사회적 관계라면 직위는 어떤지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하대(下待)하는 호칭은 절대 삼가야 한다. 물론 상대를 높인다고 능사가 아

니다.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고 비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처음에는 존경의 호칭이 무난하다. 어르신에게는 가장 좋고 만만한 것이 역시 ‘선생님’이다. 한국에서는 상대의 이름을 잘 안 부른다. 이름 대신 직함, 성씨 뒤에 직함을 부른다.

호칭 없이 불리는 경우도 많다.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권가를 물어 볼 때는 ‘저기요 ~’ 하며 다가간다. 출입금지 지역을 잘못 들어갔을 경우 경비원은 여자없이 ‘이봐요’ 라고 부른다.

업소에서 남자 손님을 부를 때는 사장님이라고 많이 부른다. 일반 존칭은 대개 선생님이다. 젊은 사람의 대명사는 학생이다.

평범하고 평등하게 부르는 사회가 편하고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호칭은 잘 골라서 사용해야 한다. 처음에는 일단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호칭을 써야 한다. 그것이 예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연례 ‘생존자 행진’ 참여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18일(현지시간) 폴란드 오시비엥침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세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열린 ‘생존자 행진’에 참여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화재 발생 병원 현장 조사하는 中 공안 관계자



19일 중국 베이징 핑타이구에서 공안 관계자가 화재가 발생한 병원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전날 이 병원 입원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21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대피했으며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